

2026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유형② 중대형 전시콘텐츠 유통 지원〉 면접심의 결과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역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유형② 중대형 전시콘텐츠 유통 지원>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12건이 접수되었으며, 통합심의를 통해 2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심의 개요

- (심의방법)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의기준에 따라 채점
- (심의위원) 국내 미술 관련 외부전문가 7인

연번	소속 및 직위	성함	연번	소속 및 직위	성함
1	엑스라지 디렉터	김재석	5	가나아트 총괄이사	이장은
2	일민미술관 학예실장	윤율리	6	서울옥션 경매사업팀장	정태희
3	세종문화회관 교육전시팀 과장	유보은	7	독립 큐레이터	추성아
4	전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이보배	※ 가나다순		

- (심의기준)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20%), 관객 확보의 구체성(30%), 신청주체의 역량 및 실적(30%), 목표 달성 및 기대효과(30%)

□ 심의결과

- (심의결과) 총 2건 선정

연번	단체명	전시명	사업비(원)
1	(주)아트센터이다	앤서니 브라운展 마스터 오브 스토리텔링 (Anthony Browne Exhibition: A Master of Storytelling)	4억5천만
2	(주)유엔씨갤러리	캐서린 번하드: Some of All My Work 展	4억

※ 접수순

□ 심의총평

본 사업은 소형 전시에 치중되었던 기존 지역 전시 지원을 중대형 전시 콘텐츠로 확대하여, 지역 미술 생태계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지원을 마중물 삼아 지역 미술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람층 확대와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기개최 전시의 성과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순회 전시로서의 기획적 차별성, 지역 관객 특성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 실행 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대중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기획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명확성과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본 사업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체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문화 향유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일정

-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3월 5주 예정

문의처

- (이메일) kimth@kric.com
- (전화) 02-6009-2750
- * 문의 가능시간 : 평일(월~금) 10시~17시 *점심시간(12시 30분~1시 30분)